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공회라 김경자 김규찬(최춘자) 김기택(배속자) 김미희 김외자 김재인(이강우) 김경자 김준구(이소은) 김진희 김현욱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박혜진(장동민) 배경철(김순화) 백성현(안지영) 윤병호(양영욱) 윤 숙 윤영준(박진숙) 이영미(유현호) 이훈욱 이종문 이태일(송백현) 이한중(김진숙) 이한철(박희영) 이창교 장윤주(김현진) 정경석(박지순) 정기성(심순욱) 지상건(이복현) 최성현(윤정자) 최정규(김미영) 최정희(박원조) 황세련 황영욱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김규찬(최효자) 김순욱(이한웅) 김외자 김재인(이강우) 김경자 김준구(이소은) 김현욱 박권제(송명숙) 박금엽 박지순(정경석) 박희영(이한철) 배경철(김순화) 안지영(백성현) 윤 숙 이미자 이종문 이태일(송백현) 이한웅(김순욱) 정기성(심순욱) 최기훈(정계숙) 홍한표 황경연(정선영)

☞ 감사현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경엽(손경아) 김병욱(이영숙) 김경연B(강준식) 김경자 김중익(박애순) 김훈태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박순웅(이승애) 방성태(차욱자) 백성현(안지영) 유은자 윤정자(최성현) 이미자 이종문 전순봉 정기성(심순욱) 정선영(황경연) 조규래 채명영(서시철)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성 김민혁 김혜란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희영 박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욱 안지영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슬아 이승애 이오은 이옥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락 최귀남 최선미 무 명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49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 26절		
월요일	디모데후서 3장 1절 ~ 9절	목요일	디모데후서 4장 9절 ~ 22절
화요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 17절	금요일	율기 32장 1절 ~ 10절
수요일	디모데후서 4장 1절 ~ 8절	토요일	율기 32장 11절 ~ 22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성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재호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송슬기 김선희		
찬양대	지 위 자	할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은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날 : 안석렬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이 집 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욱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백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줄거운교회, 아름다운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살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1. 11. 2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설교: 이진우 목사
베드로후서 1장 12-21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지키라 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유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읽힌 책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에게 주시는 존엄한 말씀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성경이 구원을 위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은,

1.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 성경은 성경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글로 믿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교묘히 꾸며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듣고 본 사실에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직분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암시하면서 자신이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이 사람의 뜻을 따라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이러한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뜻은 개인적인 주관과 생각에 맞춰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성경을 이처럼 사사로이 풀고, 개인의 지식이나 감정, 환경이나 뜻에 따라 이해하면 사람의 필요나 특정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성경의 공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이 성경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해 왜곡시킵니다.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3. 성도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복과 저주를 깨달아야 합니다.

-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에서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사사로온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뜻을 더하거나 말씀의 일부를 빼는 자에게는 영벌이 준비되어 있음을 경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구원받은 복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권위를 지닌 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척도 삼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리라.” 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를 통한 두려움과 불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과 경제, 그리고 자녀와 육체의 질병 등 여전히 매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사할 제목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를 알고 믿으며 더욱 성경의 충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롭고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같은 존계와 질책으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만연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씀의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7 - 49

2021. 12. 0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	-----------------------------------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